

# 3~6위 2경기차 '박빙'...KIA 선두권 진입 기회다

## T 타이거즈 전망대

KIA 타이거즈가 순위 싸움의 '키'를 쥐었다. KIA는 눈길 끄는 한 주를 보냈다. 오심 논란 속 0-6의 승부를 11-8로 뒤집으면서 승리로 삼성과의 원정경기를 시작했고, 4시간 57분의 혈투 끝에 한화와 4-4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4승 1무 1패로 한 주를 마무리했다.

5할 승률에 복귀한 KIA는 6위 자리에 머물렀지만 5위와의 격차를 1경기 차로 좁혔다. 3위 NC, 4위 KT, 5위 두산 그리고 6위 KIA까지 2경기 차에서 촘촘하게 엮여있다.

박빙의 순위 싸움의 중심에 KIA가 있다.

KIA는 주중 안방에서 LG를 상대한 뒤 주말 시작으로 건너가 롯데와 3연전을 갖는다.

LG가 1위 질주를 이어가고 있지만 최근 분위기는 KIA가 앞선다. 깜짝 트레이드를 단행하는 등 '우승'을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LG지만 지난 주말 최하위 삼성에 루징시리즈를 기록하면서 충격이 있었다.

올 시즌 상대 전적에서도 유일하게 KIA에 열세(4승 5패)를 보이고 있다.

KIA가 이번 시리즈에서도 우위를 점한다면 SSG와 4.5경기 차인 선두 싸움도 흥미롭게 전개될 수 있다.

주말 승부도 흥미롭다. 앞선 광주 대결에서 KIA와 롯데의 희비가 엇갈렸다.

KIA는 7월 마지막 시리즈로 전개됐던 롯데와의 홈경기에서 후반기 첫 스윙에 성공하면서 반전의 발판을 마련, 5할 승률을 회복했다.

반면 KIA에 일격을 당한 롯데는 7위로 내려앉았고, 3.5경기 차까지 벌어졌다.

'해결사' 나성범을 중심으로 한 타선의 힘은 좋다.

5할 승률 복귀 5위 1경기차 추격 안방서 LG...롯데와 원정경기 시리즈 상위 팬 선두권 점입가경 '이닝 이터' 양현종 부활 관전

최형우가 주축한 사이 나성범이 지난 주 2개의 홈런 포함 13안타로 0.565의 타율을 찍으면서 9타점을 만들었다. 3일 삼성전에서 무려 5개의 볼넷으로 걸어나가면서 6타석 출루에 성공하기도 했다.

6일 안타 없이 볼넷만 기록했던 나성범은 9회 2사 1·2루에서 동점 적시타를 날리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끌고가기도 했다.

'발'로 상대를 괴롭히는 박찬호, 최원준, 김도영도 KIA 상승세의 주역들이다.

9번 박찬호와 최원준-김도영 '데이블 세트'로 공격을 풀었던 KIA는 톱타자 최원준을 필두로 박찬호-김도영으로 이어지는 조합도 가동하면서 감 좋은 나성범 앞에 밥상을 차리는데 주력했다.

지난주 박찬호와 김도영이 나란히 9안타 5볼넷으로 부지런히 움직였고, 최원준도 8안타 3볼넷을 만들어내면서 순위 싸움에 힘을 보탤다.

문제는 다시 또 '이닝'이다.

새 외국인 선수 산체스가 1일 삼성전과 6일 한화전에 출격했지만 두 경기에서 8.1이닝을 소화하는 데 그쳤다. 양현종(사진)과 이의리의 이닝도 5이닝에서 멈추는 등 선발진의 이닝이 부족했다.

그만큼 불펜진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 한 주였다.

8일 LG 플릿코를 상대로 선발 등판에 나서는 양현종이 '노련함'으로 위기 탈출에 나서야 한다.

최근 5경기에서 양현종의 최다 이닝은 5.2이닝



이다. 4경기에서는 5이닝에서 등판이 마무리됐다. 기본 좋게 경기를 시작하고도 집중 난타를 당하면서 한번에 실점을 하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다. 8일 LG전에 이어 13일 롯데전까지 책임져야 하는 양현종의 '이닝'에 따라서 KIA 성적도 달라질 전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디샴보 꿈의 58타... LIV 첫 우승 브라이슨 디샴보(미국)가 6일(현지시간) 미웨스트버지니아주 화이트 스프링스의 울드 화이트 옛 그린브라이어에서 열린 리브 골프 10차 대회에서 우승한 후 환호하고 있다. 디샴보는 최종 합계 23안타 187타로 LIV 첫 정상에 올랐다. 그는 빅리거에서 세 차례밖에 나오지 않은 58타를 최종라운드에서 기록했다. /연합뉴스

## 한국 여자 양궁 44년만에 '노메달' 충격

### 세계선수권 개인·단체 '베를린 악몽' 재현...남자만 금 2개

한국 리커브 양궁이 여자 대표팀의 부진 속에 금메달 2개를 따내며 2023 베를린 세계선수권대회를 마쳤다.

여자 대표팀의 안산(광주여대), 강채영(현대모비스), 임시현(한국체대)은 6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개인전에서 나란히 8강에서 탈락했다.

한국 리커브 여자 대표팀이 세계선수권대회 개인전에서 단 하나의 메달도 따내지 못한 것은 2011년 토리노 대회 이후 12년 만의 일이다.

앞서 여자 대표팀은 단체전 16강에서 인도네시아에 패해 메달을 따내지 못했다.

한국 여자 리커브 대표팀이 세계선수권 개인전·여자 단체전에서 1개의 메달도 따내지 못한 것은 처음 출전한 1979년 베를린 대회 이후 4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여자 대표팀이 이번 대회에서 따낸 메달은 임시현이 김우진(청주시청)과 함께 따낸 혼성전 금메달뿐이다.

이어진 남자 단체전 8강에서 김제덕도 탈락하면서 한국 대표팀은 마지막 날 메달 수확에 실패하며 대회 일정을 마쳤다.

리커브 대표팀은 김우진(청주시청)과 이우석(코오롱), 김제덕이 나선 남자 단체전과 김우진, 임시현이 출격한 혼성전에서 금메달 1개씩을 따냈으며, 다른 종목에서는 '노메달'에 그쳤다.

한국 리커브 양궁은 2020 도쿄 올림픽에서 금메달 4개를 휩쓸고, 2021 양크턴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5종목 금메달 싸움이 '신화'를 작성하는 등 막강한 모습을 보였다.

김우진, 김제덕, 강채영, 안산 등 도쿄 올림픽과 양크턴 세계선수권에서 좋은 성적을 낸 선수

들이 올해 대표팀에도 주축으로 나섰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전 종목 석권'이 기대됐다.

하지만 여자 대표팀이 단체전 첫판에서 인도네시아에 발목 잡히며 시작부터 '뺏겼다'.

전통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온 여자 단체전에서 탈락한 선수들은 끝내 부담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4강 고지에 오르는데 졸음이 실패했다.

이번 대회부터 올림픽 단체전 직행 티켓을 주는 문턱이 높아진 점도 선수들의 부담을 어느 정도 키운 것으로 보인다.

도쿄 올림픽까지는 직전 세계선수권대회 단체전 8강 안에 드는 팀에 직행 티켓을 줬는데, 이번 파리 올림픽부터는 '컷라인'이 3위까지로 높아졌다.

물론 세계선수권에서 3위 안에 못 들어도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거나 올림픽 예선을 통과하면 티켓을 따낼 수 있지만, 늘 '최고'여야 한다는, 강박에 가까운 생각을 가진 한국 여궁사들의 부담은 컸던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또 준우승...안병훈 PGA 윈덤 챔피언십 공동 2위

### 18언더 262타...2016년 이후 PGA 네 번째 준우승

안병훈(사진)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윈덤 챔피언십(총상금 760만 달러)에서 준우승했다.

안병훈은 7일(한국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버러의 세지필드 컨트리클럽(파70·7131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2개로 3언더파 67타를 쳤다.

최종 합계 18언더파 262타를 기록한 안병훈은 러셀 헨리(미국)와 함께 공동 2위로 대회를 마쳤다.

이로써 안병훈은 2016년 5월 취리히 클래식, 2018년 6월 메모리얼 토너먼트, 2018년 7월 RBC 캐나다오픈에 이어 개인 통산 네 번째 PGA 투어 준우승을 달성했다.

안병훈은 PGA 투어 178개 대회에 나와 우승은 없었고, 준우승 네 번이 개인 최고 성적이다.

루커스 클로버(미국)가 최종 합계 20언더파 260타로 우승했다.

2009년 US오픈 챔피언인 클로버는 2021년 7월 존디어 클래식 이후 약 2년 만에 투어 통산 5승을 달성했다. 이 대회 우승 상금은 136만8천 달러(약 17억8천만원)다.

이 대회 전까지 페덱스컵 순위 112위였던 글로

버는 이번 우승으로 페덱스컵 순위를 49위로 끌어올려 상위 70명이 나가는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했다.

이번 대회는 2022-2023시즌 PGA 투어 정규 시즌 마지막 대회로 열렸다.

이 대회까지 페덱스컵 상위 70명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한다.

2022-2023시즌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대회는 10일 개막하는 페덱스 세인트주드 챔피언십을 시작으로 BMW 챔피언십, 투어 챔피언십으로 이달 말까지 이어진다.

이번 대회를 통해 70위 안으로 진입을 노렸던 저스틴 토머스(미국)와 애덤 스콧(호주)은 간발의 차로 플레이오프 진출이 좌절됐다.

이 대회 전까지 79위였던 토머스는 이번 대회 공동 12위(11언더파 269타)에 그쳐 페덱스컵 순위 71위에 머물렀다.

스콧은 이 대회 전까지 페덱스컵 순위 81위였는데, 이 대회에서 공동 7위(12언더파 268타)에 올라 순위를 72위까지만 올려냈다.

한국 선수들은 김주형이 14위, 김시우 18위, 임성재 32위, 안병훈 37위로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했다. /연합뉴스

